

유토피아적 추출

강바닥에서 퍼낸 모래와 자갈은 녹색 그물로 덮어진 채로 산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압축을 지나치게 하여 열화된 산의 이미지를 보는 것 같았다.

농지 위에 모래가 쌓여갔고,
어느새 모래독굴이라는 새로운 지명까지 생겨났다.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그 지명은
테크노파크 류의 지명과 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글동글한 돌들이 모래산에 촘촘했다. 무척 예뻐다.
이것들은 쓰임에 따라 계류돌이나 호박돌 같은 이름으로 분류되어 옮겨질 것이다.

10년 동안 그 모래산에는 나무가 자라고 정말로 산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 산은 자주 황사를 일으켰다.

모래산은 다시 채굴되어 옮겨지고 있었다.
강이 뒤집어져 산이 되고, 산이 또 다시 옮겨지고 있었다.
끊임없는 인간의 힘과 의지가 여지없이 느껴졌다.

시시포스를 떠올렸다.
굴레의 공간에 갇힌 부조리한 인간에 대한 신화,
그러나 모든 부조리에도 멈추지 않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서사가 된 그 신화 말이다.
형벌은 기꺼운 자유의지가 되고,
굴러 떨어진 바위를 응시하며 내려오는 걸음은
말 없는 기쁨이 되어버린 그 서사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언제 한번 그 돌,
굴러 떨어지는 그 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모래산을 올랐다.

Utopian Extraction

Sand and gravel from the riverbed formed a mountain covered with green nets.
It was like an image of a degraded mountain by overcompression.

Sand was piled up on the farmland,
People started calling it a new place name, Sand Valley.

It occurred to me that the name, which had no connection with the surrounding area,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ne like 'Techno Park'.

The round stones were dense in the sand.
It was very pretty.
They will be sorted by different names again according to their future use.
For ten years, trees had grown in the sand mountain and were really becoming mountain.

The mountain often caused yellow dust.
The sand mountain was being mined and moved again.
The river turned upside down and became a mountain, and the mountain was being moved again.

I could feel the unremitting power and will of human.
I thought of Sisyphus.
The myth of an absurd human being trapped in a fetter space,

But the myth that has become a narrative of human existence
that never stops at all absurdities,
-walking down staring at the rolled rock
become a silent joy.

By the way, think about it,
Have we ever talked about the stone?
the rock that rolls down?

I climbed a sand mountain.